

펫푸드궁 동결건조 간식

천연재료 간식만 고집 펫푸드궁의 장인 정신

반려동물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보이는 존재감은 미미하다. 반려동물 전체 사료시장의 90%가 외국 수입산이다. 나머지 10%를 국내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다. 사료는 시장에 뛰어들어 초기에 개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외국 상품과 국내 상품은 "가격 경쟁력부터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사료 제조에서 이윤을 남기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곡물을 써야 하는데, 국내 곡물 가격은 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

일부 국내 사료 사업자들은 외국산을 이기기 위해 질이 낮은 곡물을 썼다. 또한 사료관리법에도 허점이 있어 일부 사업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사료를 유통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됐다.

친환경 간식 전문 업체 펫푸드궁은 소비자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봤다. 일단 신뢰도가 올라가야 믿고 간식을 구입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펫푸드궁이 천연재료로 만든 간식을 고집하는 이유다.

펫푸드궁 관계자들도 펫푸드궁이 천연재료만 고집하는 장인 정신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김승욱 펫푸드궁 대표는 "펫푸드궁 상품은 천연재료만 가지고 만들었다"면서 "반려견숍들이 아직까지 전문적이지 않는데 천연 식품을 갖추고 있는 숍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건조장으로 각광 받는 반려동물 장례업체 '에이지펫'

악취·오염물질 NO! '건조장'을 아시나요

〈乾燥葬〉

자체 개발 멸균기술로 시신 건조
농림·환경부도 건조장 장점 인정
악취 많은 화장 대체 장례로 각광
서홍재 대표 "미군들도 감탄하죠"



최근 반려동물 장례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멸균 건조방식으로 악취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이지펫의 건조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에이지펫 천안본점. 사진제공 | 에이지펫



서홍재 대표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반려동물 장례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화장장도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와 민원 발생이 겹쳐 화장장 수는 제한되고 있다. 화장(火葬)은 시신을 불로 태우는 장법이다. 유기물을 태울 때 배출되는 각종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을 피할 수 없다. 화장장에 저감장치를 설치해도 냄새와 분진은 피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식만 전해지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반려동물 사업자들이 화장장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화장의 단점을 뛰어넘기 위해 여러 시도 끝에 결국 성공한 업체가 있다. 천안에 위치한 에이지펫은 화장이 아닌 건조장을 운영한다. 건조장은 시신을 태우는 게 아니라 시신을 건조해서 수분을 제거한다. 멸균과 분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에이지펫의 조영두 단장은 "화장은 시신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장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기술적으로 화장보다 더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수분만 제거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건조장을 통하면 냄새나 공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을 토대로 정부도 설득했다. 에이지펫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와 건조장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부나 환경부는 "멸균이 돼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조 단장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멸균 건조방식을 만들어냈고, 이 건조방식은 장례뿐만 아니라 유명 대형병원에서도 쓸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에이지펫의 서홍재 대표는 반려인들이 건조장 기술과 에이지펫의 장례 진행에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미군들이 방문해서 에이지펫의 장례 과정을 지켜보고 감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례 치르는 과정을 사람 장례식과 똑같이 진행하니 '고맙다'고 말해준다"고 귀띔했다.

특히 반려인들의 마음을 다독일 때 중요한 것은 염(殮) 하는 과정이다. 에이지펫은 반려동물의 염하는 과정을 모두 공개해 반려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한다. 건조장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호응하는 것도 있다. 미군들이 스스로 홍보를 해줘 평택 미군 기지에서 천안까지 찾아오기도 한다.

건조장은 화장, 매장과 함께 우리의 전통적인 장법이다. 한국에도 풍장(風葬)의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서양과는 달리 현대 한국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 현실적인 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술이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도심 지역을 피해 공장지대나 야산 근처에 위치해 있다. 냄새와 분진 때문이다. 하지만 에이지펫은 도심에서 불과 50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 대표는 "건조장은 냄새나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민원도 없다"고 말했다. 건조장과 에이지펫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반려동물 파티, 죠이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반려동물 파티용품 판매·렌탈 업체
유해 첨가물 無…대형 유통 납품도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업종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인천의 죠이하우스(대표 김소희)는 반려동물 이벤트와 파티용품을 판매 또는 렌탈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죠이하우스는 1993년에 설립돼 파티와 이벤트 용품을 제조, 수입, 유통을 하는 전문 도매 업체로 출발했다. 또한 회사의 일정 금액의 수익을 정해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는 등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실천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그동안 나눔을 해온 단체는 초록우산(국내·국외) 해피홈, 꽃동네, 장애인 은광복지재단, 그리고 1:1아동결연 재단을 통해 개인 후원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김소희 대표가 여성으로 회사 내 기업부설 여성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죠이하우스의 대표적 상품은 인쇄풍선으로 반려동물 파티 장식과 소품 등에 주로 쓰인다. 김 대표는 원가절감보다는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천연라텍스를 원료로 유해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다.

죠이하우스의 상품은 20여 년 동안 국내 최고의 파티용품 도매업체로 평가받아 한국의 KC인증은 물론 영국, 독일, 유럽, 북미의 공인인증기관인 인터텍(Intertek)과 튜브(TUV)에서 주관하는 시험성적서를 취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파티·이벤트 전문회사 죠이하우스의 파티용품들. 사진제공 | 죠이하우스

죠이하우스는 지금까지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경쟁력을 확보 반려동물관련 각종 파티와 이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김소희 대표는 파티 용품과 소품 제작을 좋은 원료로 하여 "안전과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